

큰 게 잘나간다...가성비·먹는 재미 묻고 더블로

팔도 '정보 도시락'·스타벅스 '트렌타 사이즈' 음료·점보팝콘 등 히트 SNS 인증샷·유튜브 '먹방 콘텐츠'로 화제...중고거래 앱서 거래 활발

"큰 녀석이 잘나간다."

유통업체가 기존 상품을 대용량화한 제품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8배 넘게 커진 대형 컵라면은 출시 직후 품귀 현상을 빚는가 하면, 음료도 큰 사이즈가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상품은 압도적인 크기로 먹는 재미를 주는 장점에 불경기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19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여름 음료 3종을 대용량 사이즈인 '트렌타'(30온스·887ml)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주문 가능한 가장 큰 사이즈는 '벤타' 용량은 591ml로 트렌타는 이보다 1.5배 크다. 트렌타는 북미지역 일부 음료에 한해 주문이 가능한 용량이다.

스타벅스는 북미 지역에서 트렌타 사이즈 음료를 맞춘 고객들의 요청으로, 이 사이즈를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트렌타 사이즈 음료를

9월까지 판매한 뒤 고객 의견을 바탕으로 이 사이즈의 확대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팔도'가 선보인 '정보 도시락'도 출시된 지 2달 가까이 됐지만 그 인기가 여전하다. '먹방 트렌드'를 반영해 출시된 정보 도시락은 전체 중량이 729g으로 기존 팔도 도시락(86g)의 8.5배다.

상품은 출시 이후 SNS 인증샷과 유튜브 '먹방 콘텐츠'로 활용되면서 큰 화제를 일으켰고 출시 약 3일 만에 초도 물량 5만여개가 품절됐다. 중고거래 앱에서는 웃돈을 얹혀 판매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정보 도시락 인기에 힘입어 기존의 팔도 도시락 매출과 전체 컵라면 카테고리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각각 157.7%, 4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업계도 여름을 맞아 정보 사이즈 음료를 선보인다. GS25는 자체 원두커피 브랜드 '카페25' 새 메뉴로 아이스아메리카노 정보 사이즈를 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용량은 780ml로, 기존 아이스아메리카노 라지

사이즈보다 1.6배 더 크다. 용량은 늘었지만 100ml 당 가격은 약 30% 저렴하고, 구독 할인과 통신사 제휴 할인 등을 받으면 1000원대로 낮아진다.

GS25는 대용량 상품이 전체매출의 70% 넘게 차지한 점을 고려해 대용량 사이즈 출시를 결심했다.

풀무원식품도 대용량 냉장주스 '잇츠 프레쉬업'을 최근 출시했다. 기존 가장 큰 800ml 제품보다 3배 가량인 2.3l다.

작은게 당연한 요구르트도 어색하리 만큼 큰 제품으로 사랑받고 있다. 280ml 용량의 hy 대용량 발효유 브랜드 '아쿠르트 그랜드'는 올해 1~5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했다.

이밖에도 편의점 GS25는 가성비 트렌드에 맞춰 '정보 도시락', '해자로운맘소스', '넷플릭스점보팝콘' 등을 연이어 출시하며 히트를 기록하고 있다.

기존 팝콘 상품 대비 6배 큰 특대형 스낵(400g) 넷플릭스 점보팝콘은 출시 직후 새우깡, 포카칩 등 전통 스낵을 제치고 스낵부류 매출 1위에 등극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불경기 상황에 '가성비' 대용량 상품이 매출 상승을 견인하는 길러 콘텐츠가 됐다"며 "대형상품은 시각적인 재미도 함께 주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GS25모델이 '정보 도시락' 컵라면과 일반 팔도 도시락 컵라면을 들어보이고 있다.



동영상 촬영 자유자재로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9층 카메라매장에서 다양한 미러리스 카메라와 하이엔드 카메라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은 이달 말까지 다양한 미러리스 카메라와 하이엔드급 카메라를 품목별로 최대 5% 할인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민원서류 이젠 편의점서 출력...이마트24 '프린팅박스' 도입

생활 밀착형 서비스 강화

이마트24는 무인 출력 키오스크 '프린팅박스'(Printing Box)를 도입해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프린팅박스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이나 문서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에 올린 뒤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각종 증명사진은 물론 정부24와 홈텍스 등의 민원서류도 출력이 가능하다.

이마트24는 이달 초 30여개 매장에 프린팅박스 서비스가 가능한 키오스크를 도입했으며, 연내에

100개 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마트24는 전기 바이크 이용 고객을 위해 충전 스테이션을 도입하고, 금호타이어와 타이어 대여 서비스도 출시하는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유통 납품사에 가격 결정 간섭 법으로 막는다

대규모유통업체...본회의 통과

온라인 쇼핑물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면 대규모유통업체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영간섭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체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면 안 된다.

법 위반 시 공정위가 납품 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경영 간섭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므로 현재도 제재 대상이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물 등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인 대규모유통업체에는 경영 간섭 금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이 자사 쇼핑물 상품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경쟁 온라인 물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특별법인 대규모유통업체 대신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려면 거래상 우월한 지위 유무를 입증하는 등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범위도 관련 매출액의 4% 이내로 차이가 있다.

쿠팡 사례는 공정위와 국회가 대규모유통업체를 손질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정거래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에 각 1명씩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연합뉴스

겨울옷 쇼핑은 여름에...롯데온 역시즌 행사

26일까지 최대 80% 할인

롯데온은 오는 26일까지 겨울 패션 상품을 최대 80% 할인하는 역시즌 행사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디스커버리, 네파 등의 겨울 패션 상품 물량을 약 200억원 규모로 확보해 내놓는다. 행사 기간 최대 20%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특정 카드로 결제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준다. 또 매일 오전 10시 특가 상품을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고, 23일까지는 스포츠 패션 상품도 할인한다.

롯데온은 고물가 시대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겨울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